

凌濛初의 『拍案驚奇』 속 상인 이미지 고찰*

— 「轉運漢遇巧洞庭紅 波斯胡指破龍殼」과 「疊居奇程客得助 三救厄海神顯靈」

중심으로

양레이레이*

목 차

1. 서론
2. 두 작품 속 주인공의 상인 이미지
 - 1) 사인(士人)의 정체성을 띤 상인(商人)
 - 2) 귀향(歸鄉) 여부와 혼인 형태의 차이
3. 두 작품 속 조력자의 상인 이미지와 상징적 의미
 - 1) 외향(外鄉) 상인의 전범(典範) 마보함(瑪寶哈)
 - 2) 초현실적 여성 조력자 해신(海神)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명대 말기 능몽초의 백화 단편소설집 『초각박안경기』 권1에 실려 있는 「전운한우교동정홍(轉運漢遇巧洞庭紅)」과 『이각박안경기』 권37에 실려 있는 「첩거기정객득조(疊居奇程客得助)」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두 작품에 나타난 상인 이미지를 고찰하였다. 먼저 두 작품의 주인공에게서 ‘상인’과 ‘사인’이 융합된 양상과 상업 활동에 대한 복합적인 태도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확인하였으며, 귀향 여부와 혼인 형태라는 측면에서는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상업이 급속히 발전하던 시대

* 이 논문은 中國 山東省教育廳 2023년도 山東省教育系統 “省校聯合培養計劃” 참여자의 연구성과물이다.

** 楊蕾蕾, 中國 山東師範大學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조교수.

적 변화 속에서, 작가가 창작 과정에서 통일성과 모순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모색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주인공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주변 인물들의 상인 이미지와 그 상징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작가가 이상적인 상인상을 구현하고자 한 의도가 명확히 밝혀진다.

키워드 : 명대 소설, 백화 단편, 상인, 조력자, 상업 서사, 상업 전략

1. 서론

능몽초(凌濛初)는 중국 소설사에서 최초로 독자적 창작 성격을 지닌 백화 단편 소설집을 낸 작가이다.¹⁾ 현재 그의 작품으로는 『초각박안경기(初刻拍案驚奇)』와 『이각박안경기(二刻拍案驚奇)』가 전한다. 『초각박안경기』는 총 40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 천계(天啓) 7년(1627)에 편찬되어 승정(崇禎) 원년(1628)에 출판되었다. 『이각박안경기』는 역시 40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 중 한 편은 『초각박안경기』 권23과 중복되고, 또 한 편은 잡극(雜劇) 형식으로 되어 있어, 실제 수록된 소설은 총 38편이다. 이 작품은 승정 5년(1632)에 편찬되어 출판되었다.²⁾

『초각박안경기』와 『이각박안경기』는 중국 소설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1950년대 이후 관련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³⁾ 주요 연구 분야로는 인물 형상⁴⁾, 서사 구조⁵⁾, 텍스

1) 능몽초 이전에도 풍몽룡(馮夢龍)의 『喻世明言』, 『警世通言』, 『醒世恒言』과 같은 백화 단편 소설집이 있었으나, 주로 편찬(編纂)과 모작(模作)의 성격이 강하였다.

2) 邱紹雄, 『中國商賈小說史』, 北京大學出版社, 2004, 129면.

3) 王立言·人民的 「三言」二拍研究綜述(1949-1989) (상/하) (『中國文學研究』 4, 湖南師範大學, 1992 ; 『中國文學研究』 1, 湖南師範大學, 1993)에 정리된 바가 있다.

4) 中國知網(CNKI)에 기반하여 검색한 결과, 비교적 초기의 연구로는 田國梁의 「試談三言、二拍中幾類婦女形象的社會意義」 (『西北民族學院學報』 4, 1988)가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許佳慧의 「三言二拍中的節婦形象探析」 (『長春師範大學學報』 7, 2024)이 있다. 인물 형상에 관한 연구는 여성 형상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상인(商人) 형상,

트 비교⁶⁾, 사랑과 혼인⁷⁾, 시민 사상⁸⁾, 문화⁹⁾ 등이 있다.

특히 상업 주제를 다룬 연구는 상인 형상¹⁰⁾, 상업적 가치관 및 사상¹¹⁾, 그리고 사대부와 상인 집단 간의 관계¹²⁾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

문인(文人) 형상, 승니(僧尼) 형상, 매과(媒婆) 형상, 의부(義仆) 형상, 관리(官吏) 형상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 5) 서사에 관한 연구 중 비교적 초기의 연구로는 程國賦의 「三言二拍嬾變作品敘事結構研究」(『學術研究』 5, 2005)가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李軍의 「三言二拍中神仙故事的敘事特點及社會意義」(『長江小說鑒賞』 22, 2024)가 있다.
- 6) 텍스트 원본에 관한 연구 중 비교적 초기의 연구로는 程國賦의 「三言二拍選本與原作的比較研究」(『明清小說研究』 2, 2004)가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馬蕭·郎希萌의 「三言二拍英譯史料辨析和底本辨明」(『長江學術』 1, 2022)이 있다.
- 7) 사랑과 혼인에 관한 연구 중 비교적 초기의 연구로는 劉敬圻의 「婚戀觀念的嬾變及其啓示-「三言」二拍名篇心解」(『北方論叢』 2, 1994)가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邢晴爽·張金明的 「論三言二拍中愛情信物的價值」(『燕山大學學報』 6, 2023)가 있다.
- 8) 시민 사상에 관한 연구 중 비교적 초기의 연구로는 吳明東·葛衛東의 「功利觀的萌發與市民道德觀的升值-「三言二拍」思想新變闡釋」(『齊齊哈爾大學學報』 3, 1999)이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郎娟娟의 「從“三言二拍”看明代市民文學的特色」(『綿陽師範學院學報』 12, 2018)이 있다.
- 9) 문화에 관한 연구 중 비교적 초기의 연구로는 段江麗의 「理學與《三言》、《二拍》中的道德說教」(『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3, 1999)가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趙婷婷의 「論“三言二拍”中的明代司法文化」(『名作欣賞』 3, 2024)가 있다.
- 10) 관련 연구는 邱紹雄의 「試論「三言」「二拍」中的商人形象」(『岳陽大學學報』 2, 1992)을 비롯해, 伏漫戈의 「二拍人物研究」(박사학위논문, 陝西師範大學, 2006), 洪娟의 「論“三言”中的商人、文人和妓女形象」(석사학위논문, 中央民族大學, 2006), 曲玉의 「二拍人物形象探析」(석사학위논문, 蘇州大學, 2007), 王瑞雪的 「三言商人形象的文化解讀」(석사학위논문, 延邊大學, 2008), 趙雪豔의 「“三言”“二拍”中反面商人形象及其勸誡意義」(『哈爾濱學院學報』 4, 2008), 蘇傳波的 「三言二拍中的商人形象研究」(석사학위논문, 黑龍江大學, 2012) 등 다수의 성과를 이루었다.
- 11) 관련 연구로는 全賢淑의 「明代白話短篇小說中誠信觀念研究」(박사학위논문, 東北師範大學, 2006), 趙雪豔의 「三言二拍的商業價值觀研究」(석사학위논문, 中國海洋大學, 2008), 張寧의 「三言二拍中涉商類小說思想研究」(석사학위논문, 北京師範大學, 2008), 任治蘭의 「<二拍>經商活動總論」(석사학위논문, 曲阜師範大學, 2010), 迪更妮의 「論三言二拍中基于傳統文化思想的商業論理道德」(석사학위논문, 中國石油大學, 2015), 張亮星的 「經濟維度下的“三言二拍”研究」(석사학위논문, 江西師範大學, 2021) 등이 있다.
- 12) 관련 연구 중에 李桂奎의 「論“三言”“二拍”角色設計的土商互滲特徵」(『遼寧師範大學學

한 연구들은 작품 전체를 광범위하게 다루다보니 개별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부족하다. 『초각박안경기』와 『이각박안경기』의 상업 관련 작품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물론 선행연구 중에 단편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연구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중국 鄧作惠(2007)의 「明末商人心靈世界的寫眞—〈疊居奇程客得助 三救厄海神顯靈〉文化解讀」¹³⁾과 한국 宋眞榮(2015)의 「‘二拍’의 商賈小說 연구—〈轉運漢巧遇洞庭紅 波斯胡指破龜龍殼〉을 중심으로」¹⁴⁾가 있다. 하지만 전자는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갈망, 상품 정보의 예지, 생명 안전의 보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 분석에만 머물렀고, 후자는 『초각박안경기』 권1의 〈轉運漢巧遇洞庭紅 波斯胡指破龜龍殼〉을 통해 이박(二拍)의 상고소설이 갖는 주요 특징을 고찰했으나, 상업 주제 이야기 속 상인 이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박의 문학적 가치는 상인 서사에서 드러나며, 이를 규명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상업 관련 이야기를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초각박안경기』 권1과 『이각박안경기』 권37에 실려 있는 두 작품에 나타난 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그 내재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 두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능몽초의 두 소설집에서 상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상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작

報』 4, 2003)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는 王桂清的 「從‘三言’‘二拍’中商人入仕途徑看商人的官本位意識情結」(『北方論叢』 2, 2004), 鄒全俊의 「‘三言二拍’中商人形象的兩難境遇與創作矛盾」(석사학위논문, 東北師範大學, 2007), 周宜智의 「明末清初小說中的儒商形象研究」(석사학위논문, 新疆師範大學, 2007), 李志琴의 「試論“三言”“二拍”中的儒商精神」(『韶關學院學報』 11, 2011), 郭秀蘭의 「淺談‘二拍’中的儒商形象」(『長春師範學院學報』 4, 2013), 劉越의 「‘三言二拍’中的士商形象研究」(석사학위논문, 重慶工商大學, 2017), 崔璟宸·何雨航의 「從“三言二拍”看明代士商群體的交融」(『名作欣賞』 23, 2024) 등이 있다.

13) 鄧作惠, 「明末商人心靈世界的寫眞—《疊居奇程客得助三救厄海神顯靈》文化解讀」, 『阜陽師範學院學報』 4, 2007.

14) 宋眞榮, 「‘二拍’의 商賈小說 연구—〈轉運漢巧遇洞庭紅 波斯胡指破龜龍殼〉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46, 한국중국소설학회, 2015, 163-188면.

품은 『초각박안경기』 권1, 권4, 권8, 권22와 『이각박안경기』 권28, 권36, 권37로 모두 7편이다. 이외에 상인을 주변 인물로 등장시킨 작품은 23편에 달한다. 중복을 제외하면 두 소설집 전체에서 상인을 언급한 작품은 총 25편으로 집계된다.¹⁵⁾ 이는 전체 작품의 32% 비중이므로 상업이 중요한 주제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명나라 말기라는 전환기적 시대 배경 속에서 창작되어 큰 주목을 받은 백화 단편소설에 나타난 상인 이미지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이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주인공이 상인이며 작품 내에 상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묘사된다는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25편의 작품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선별한 결과는 작품 두 편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초각박안경기』 권1의 「전운한우교동정홍(轉運漢遇巧洞庭紅) 과사호지과타룡각(波斯胡指破龍殼)」¹⁶⁾이며, 다른 하나는 『이각박안경기』 권37의 「첩거기정객득조(疊居奇程客得助) 삼구액해신현령(三救厄海神顯靈)」¹⁷⁾이다. 본고는 이 두 작품의 본(本) 이야기¹⁸⁾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상인 이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두 작품 속 주인공의 상인 이미지

「전운한우교동정홍(轉運漢遇巧洞庭紅)」은 『초각박안경기』 권1에 실려 있으며, 명나라 주원위(周元暉)의 『경림속기(涇林續記)』 「소화경상(蘇和經商)」을 바탕으로¹⁹⁾ 창작된 작품이다. 한편, 「첩거기정객득조(疊居奇程客得助)」

15) 任治蘭, 「〈二拍〉經商活動總論」, 석사학위논문, 曲阜師範大學, 2010, 7면.

16) 서술의 편의를 위해 이 글에서 아래부터 「전운한우교동정홍(轉運漢遇巧洞庭紅)」이라고 하기로 한다.

17) 서술의 편의를 위해 이 글에서 아래부터 「첩거기정객득조(疊居奇程客得助)」라고 하기로 한다.

18) 각 권의 텍스트는 모두 도입 이야기와 본(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 이야기는 본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 이야기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은 『이각박안경기』 권37에 수록되어 있으며, 명나라 채우(蔡羽)의 『遼陽海神傳』을 근거로²⁰⁾ 창작되었다.

먼저 「전운한우교동정홍(轉運漢遇巧洞庭紅)」의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소주(蘇州)-북경(北京)-소주(蘇州)

- ① 문약허의 곤경: 문약허는 소주 출신으로, 북경에서 하는 부채 장사 등 모두 실패하여 "도운한(倒運漢)"으로 불렸다.
- ② 장승운의 지원: 장승운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문약허를 위해 은 1냥을 모아 주었고, 그는 이 돈으로 동정홍(洞庭紅)이라 불리는 귤을 샀다.

나. 해외(海外)-무인도(無人島)-복건(福建)

- ① 해외에서의 기회: 문약허는 장승운 등과 함께 바다를 건너 길령국(吉靈國)에 갔고, 그곳에서 동정홍 귤을 뜻밖에 높은 가격에 팔아 은 1,000냥을 벌었다.
- ② 무인도에서의 발견: 돌아오는 길에 문약허는 무인도에서 큰 거북의 껍질을 발견해 복건으로 가져갔다.
- ③ 페르시아 상인과의 거래: 복건에서 페르시아 상인이 거북 껍질을 은 5만 냥에 구매했으며, 이 거북 껍질이 타롱 껍질이라는 사실과 그 안에 야명주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 ④ 운명의 전환: 페르시아 상인의 조언에 따라 문약허는 복건에서 비단 점포를 받고 경영했다. 그는 복건 지역에서 가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꾸려 부유하게 살았다.

19) 邱紹雄, 앞의 책, 132면.

20) 邱紹雄, 앞의 책, 145면.

다음으로 「첩거기정객득조(疊居奇程客得助)」의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휘주(徽州)-요양(遼陽)

- ① 정재 형제의 실패: 정재(程宰)는 휘주 출신으로, 형 정채(程宰)와 함께 수천 금의 상품을 가지고 요양에서 장사를 했으나, 자본을 모두 잃고 말았다.
- ② 고용인의 신세로 전락: 정재 형제는 같은 휘주 출신 상인의 점포에 고용되어 장부 관리를 맡으며, '이조봉(二朝奉, 점포 관리인)'이 되었다.
- ③ 해신과의 만남: 정재는 해신과 만나게 되었고, 해신의 도움을 받아 장사 다시 하기 시작되었다. 해신은 그에게 약재, 비단, 직물 등을 거래하라고 알려 주었다.
- ④ 첫 번째 성공: 정재는 팔리지 않던 약재인 황백나무 껍질과 대황을 헐값에 매입하였다. 그후 전염병이 유행되면서 약재 가격이 급등해 큰돈을 벌게 되었다.
- ⑤ 두 번째 성공: 정재는 곰팡이가 핀 비단들을 저렴하게 사들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동 전쟁이 발발하자, 이 비단들을 원가의 세 배 가격에 팔아 또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 ⑥ 세 번째 성공: 정재는 대량의 거친 천을 구매했다. 얼마 후 황제의 서거로 인해 이 천들이 장례용으로 모두 소진되면서 은 3,000~4,000냥의 이익을 얻었다.

나. 요양(遼陽)-대동(大同)-거용관(居庸關)-회안(淮安)-휘주(徽州)

- ① 해신의 구원: 해신은 정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위기 세 번의 위기가 닥칠 것을 알려 주었다. 정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해신이 도와주어 무사히 위기를 극복했다.
- ② 정재의 만년: 고향 휘주로 돌아온 정재는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았다.

위와 같이 「전운한우고동정홍(轉運漢遇巧洞庭紅)」의 주인공 문약허와 「첩거기정객득조(疊居奇程客得助)」의 주인공 정재는 모두 장사에서 실패를 겪은 뒤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타향에서 치부(致富)에 성공하였다. 표면적으로는 두 작품의 상인 서사가 비슷한 구조로 전개되는 듯하지만 사실 문약허와 정재는 상인 이미지가 비슷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인다.

1) 사인(士人)의 정체성을 띤 상인(商人)

첫째, 상인(商人)과 사인(士人)이 융합된 이미지이다.

가.

듣건대 명나라 성화(成化) 연간에 소주부(蘇州府) 장주현(長州縣)의 창문(闕門) 밖에 한 사람이 있었다. 성은 문(文)이고 이름은 실(實)이며 자는 약허(若虛)였다. 슬기롭고 영민한 것이 타고났으니, 무엇이든 하기만 하면 반드시 잘 해내고, 배우기만 하면 쉽게 습득한다. 거문고, 바둑, 글씨, 그림은 물론이고,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일까지 어느 것이든 대략 할 줄 알았다.²¹⁾

나.

듣건대 휘주(徽州)에 한 상인이 있었으니, 성은 정(程)이고 이름은 재(宰)이며 자는 사현(士賢)이었다. 저 어촌에서 번성한 가문으로, 대대로 유학을 지켜 온 집안이라 한다. 젊은 적에는 시(詩)와 서(書)를 익히 읽어 학문에 통달하였다.²²⁾

두 이야기의 시작은 등장인물의 출신 배경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에서 문약허가 '거문고, 바둑, 글씨, 그림은 말

21) "話說, 國朝成化年間, 蘇州府長州縣闕門外有一人, 姓文, 名實, 字若虛. 生來心思慧巧, 做著便能, 學着便會. 琴棋書畫, 吹彈歌舞, 件件粗通." (明 凌濛初, 『拍案驚奇』 卷一 明崇禎尙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3면)

22) "話說徽州商人姓名宰, 表字士賢, 是彼處漁村大姓, 世代儒門, 少時多曾習讀詩書." (明 凌濛初, 『二刻拍案驚奇』 卷三十七 明崇禎尙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426면)

할 것도 없고, 온갖 악기며 노래에 춤까지 다 할 줄 안다'는 대목이다. 물론 이 표현은 문약허가 총명하다는 점을 부연 설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거문고, 바둑, 글씨, 그림은 전통적으로 문예와 풍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문약허가 '사(士)'의 지향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나)에서는 '대대로 유학의 가문이었으며, 소년 시절에는 시문과 경전을 다수 익히며 수학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정재가 사대부 집안 출신을 밝혔다. 이처럼 '사'에 대해 지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인물은 상인으로서의 본업(本業)을 가지게 된다.

가.

어렸을 때 일찍이 어떤 자가 그의 관상을 보더니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는 자기 재능만 믿고 생계를 꾸릴 생각을 조금도 해보지 않았다. (중략) 다른 사람이 장사해서 이익을 획득하면서 항상 몇 배의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장사를 해보려고 생각했지만, 백 가지를 해봐도 백 가지 다 실패하고 말았다.²³⁾

나.

휘주의 풍속은 상업을 가장 으뜸가는 생업으로 여기고, 과거 급제는 오히려 그다음으로 본다.²⁴⁾

위와 같이 (가)에서 언급된 '거만지부(巨萬之富)', '영구생산(營求生産)', '주사생의(做些生意)' 등의 표현은 문약허의 집안이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문약허는 '사'에 지향이 보이면서도 장사를 하게 된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반면, (나)에서는 '세대유문(世代儒門)'으로 표현된 집안이 상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는 휘주의 풍속으로, 장사를 으뜸가는 생업으로 여기며 과거 급제는 도리어 그다

23) "幼年間，曾有人相他有巨萬之富。他亦自恃才能，不十分去營求生産。(중략) 看見別人經商圖利的，時常獲利幾倍，便也思量做些生意，却又百做百不著。"(明 凌濛初，『拍案驚奇』 卷一 明崇禎尙友堂刻本，中國基本古籍庫，3면)

24) "卻是徽州風俗，以商賈爲第一等生業，科第反在次著。"(明 凌濛初，『二刻拍案驚奇』 卷三十七 明崇禎尙友堂刻本，中國基本古籍庫，426면)

음으로 여겼다.'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두 인물은 상인(商人)과 사인(士人) 융합된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명나라 말기에 상업의 발전과 함께 상업과 상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동시에 '사'에 대한 전통적 숭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도 드러난다. 따라서 문약허와 정재는 상인(商人)과 사인(士人)이 융합된 이미지를 들어내며, 명나라 중기 이후 소설에 이르러 사대부와 상인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²⁵⁾, '士商合流'라는 사회적 변화를 뚜렷하게 형상화하였다.

둘째, 장사에 대한 복합적인 인식이다.

가.

(출발할 때의 생각)

'일신이 곤궁하고 생계가 전부 사라졌다. 이번에 남들의 항해를 따라가 해외의 풍경을 보면 한평생에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²⁶⁾

(말석에 앉을 때의 후회)

문약허는 온 얼굴에 부끄러움이 가득하여 맨 끝자리에 앉았다. (중략) 속으로도 살짝 후회하며 혼잣말하였다. "이전에 그들이 권했던 말을 듣고 물건을 좀 사 있어야 했는데, 지금 공연히 몇백 냥의 은을 주머니에 갖고 있어도 한마디도 못 하는구나."²⁷⁾

나.

정재가 속으로 생각하였다. "나는 밤이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것이 없어 이처럼 호사를 누리고 있으나, 낮에는 여전히 남의 고용한 사람일 뿐이다. 해신이 어찌 내 마음속의 일을 알겠는가!" 그래서 이전에 장사에서 수천 금을 잃어 이곳에 떠돌게 된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끝내 탄식을 금치 못하였다.²⁸⁾

25) 余英時, 『中國近世宗教倫理與商人精神』, 九州出版社, 2014, 284면.

26) "一身落魄, 生計皆無, 便附了他們航海, 看看海外風光, 也不枉人生一世." (明 凌濛初, 『拍案驚奇』 卷一 明崇禎尙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4면)

27) "文若虛滿面羞慚, 坐了末位. (중략) 自心裏也微微有些懊悔道: '我前日該聽他們勸, 置些貨物來的是. 今枉有幾百銀子在囊中, 說不得一句說話.'" (明 凌濛初, 『拍案驚奇』 卷一 明崇禎尙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10면)

28) "程宰自思: '我夜間無欲不遂, 如此受用, 且裏仍是人家傭工. 美人那知我心事來!' 遂把往年質

위와 같이, (가)에서 문약허는 바다로 떠날 때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서 그저 해외의 풍경을 구경할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동정홍 글을 팔아 큰돈을 번 후, 가지고 있는 화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좌석 배치를 받게 되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한편, (나)에서는 정재 또한 장사에 대해 복잡한 내면의 심경을 드러낸다. 정재가 장사 실패와 신분적 추락을 떠올리며, 욕망의 충족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 장사에 얽힌 복잡한 심경을 보여준다. 두 인물은 장사의 실패로 인해 삶이 여의치 않게 되자 장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장사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 복합적이고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상인으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2) 귀향 여부와 혼인 형태의 차이

첫째, 상인으로서의 고향 이탈과 귀환이다.

가.

문약허가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을 거처로 삼는다면 왕후(王侯)의 집과 다를 바가 없겠구나! 게다가 비단 가게까지 있어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으며, 수익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여기서 타향인(他鄉人)으로 얽혀살면 그만이지. 고향의 집을 생각하면 뭐 하겠는가?'²⁹⁾

(문약허의 결말)

몇 해 뒤에야 비로소 소주(蘇州)에 한 번 돌아가, 지인들을 만났고 다시 떠나갔다. 지금까지 자손이 번성하고 가업이 부유하여 끊이지 않았다고 하였다.³⁰⁾

易耗折了數千金，以致流落於此告訴一遍，不勝嗟嘆" (明 凌濛初, 『二刻拍案驚奇』 卷三十七 明崇禎尙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431면)

29) "文若虛暗道：'得此爲住居，王侯之家不過如此矣。況又有緞鋪營生，利息無盡，便做了這裏客人罷了，還思想家裏做甚?'" (明 凌濛初, 『拍案驚奇』 卷一 明崇禎尙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13면)

나.

가정(嘉靖) 갑신년이 될 때 해신과 정재가 왕래한 지 이미 7년이 지났으나, 두 사람의 감정은 하루와 같이 변함이 없었다. 정재의 주머니에는 다행히도 재물이 다시 넉넉해졌으니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³¹⁾

(정재의 결말)

훗날 정재가 예순을 넘긴 나이에 남경(南京)에서 채림옥(蔡林屋)을 만났는데, 그의 얼굴이 마치 마흔 남짓한 사람과 같았으니, 진실로 기이한 자를 만난 것이 분명하다. 만약 해신과 봉래삼도(蓬萊三島)에 간다는 약속을 따른다면 나중에 반드시 신선의 길에 오르게 될 것이다.³²⁾

이처럼 (가)에서 문약허는 페르시아 상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복건 지역에서 살기로 하며 고향에 돌아가지 않기로 한다. 반면, (나)에서 정재는 해신과 부부처럼 7년이나 보내고 해신의 도움으로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벌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귀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물론 문약허와 정재의 상황이 다르다. 문약허는 고향에 처와 자식이 없었던 반면, 정재는 아내를 고향에 두고 요양 지역에서 장사를 하며 20여 년 동안 살았다. 따라서 귀향 여부의 선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재는 고향에 완전히 정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다녀올 생각이었다. 결국 해신이 다시 만나 주지 않겠다고 해서 귀향을 결심하게 된다. 당시 '행상(行商)'은 고향을 떠나 장사를 하는 것이 회주 지역에서 일반적인 방식이었지만, 이 부분은 작가가 상인의 귀향을 합리화시키면서 전통적인 귀향 의식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30) "數年之間, 才到蘇州走一遭, 會會舊相識, 依舊去了. 至今子孫繁衍, 家道殷富不絕." (明 凌濛初, 『拍案驚奇』 卷一 明崇禎尙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15면)

31) "到嘉靖甲申年間, 美人與程宰往來, 已是七載. 兩情縈縈, 猶如一日. 程宰囊中幸已豐富, 未免思念故鄉起來." (明 凌濛初, 『二刻拍案驚奇』 卷三十七 明崇禎尙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433면)

32) "後來程宰年過六十, 在南京遇著蔡林屋時, 容顏只像四十來歲的, 可見是遇著異人無疑. 若依著美人蓬萊三島之約, 他日必登仙路也." (明 凌濛初, 『二刻拍案驚奇』 卷三十七 明崇禎尙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435면)

둘째, 상인으로서의 혼인 불가(不可)와 양두대(兩頭大)³³⁾이다.

가.

①몇 년 지나지 않아 가산을 깨끗이 날렸으니 장가들지 않아 처자조차 없었다.³⁴⁾

②이로부터 문약허는 민중(閩中)에서 한 부상이 되어, 그곳에서 처자를 얻어 가업을 일으켰다.³⁵⁾

나.

①"나는 낭군을 해치려는 자가 아니요. 그대와 오래전부터 이어 온 인연이 있어 일부러 찾아왔으니 부디 의심치 마시오."³⁶⁾

②"내가 집을 떠난 지 스무 해가 지났으나 (중략) 잠시 형과 함께 고향에 돌아가 아내와 자식들을 한 번 보고 곧장 다시 오려 해요. 길어야 1년 안에 돌아올 터이니, 이후로는 이곳에서 그대와 영원히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겠소?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³⁷⁾

(가-①)에서 드러나듯, 문약허는 장사를 할 때마다 밀천을 잃어 "도운한(倒運漢)"이 되었고 혼인도 하지 못해 자식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가산을 모두 탕진한 후에는 사실상 혼인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가-②)에서 보듯, 그는 결국 복건 지역에서 큰 부자가 된 후에야 혼인하게 되고 가업을 일으켰다. 이는 상인에게 밀천이 없으면 장사는 물론 혼인조차 어려운 가혹한

33) 양두대(兩頭大): 명청 시대 휘주 상인들은 외지에서 상업 활동을 하면서 감정적, 생리적 필요로 인해 일부 상인들이 외지에서 아내를 또 맞아들인다. 즉, 고향과 상업 활동의 거주지 두 곳에 각각 아내를 두고, 정실과 첩의 구분 없이 두 가정을 유지하는 혼인 형태이다. 이는 휘주 지역 상인들의 상업 활동과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李小榮, 「明代白話短篇小說與徽商」, 석사학위논문, 安徽師範大學, 2004, 65-70면, 참고)

34) "不數年, 把個家事干圓潔淨了, 連妻子也不會娶得." (明 凌濛初, 『拍案驚奇』 卷一 明崇禎尙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4면)

35) "從此, 文若虛做了閩中一個富商, 就在那裡取了妻小, 立起家業." (明 凌濛初, 『拍案驚奇』 卷一 明崇禎尙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15면)

36) "吾非是有害于人的, 与郎君有夙緣, 特來相就, 不必見疑." (明 凌濛初, 『二刻拍案驚奇』 卷三十七 明崇禎尙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428면)

37) "某离家已二十年了 (중략) 意欲暫与家兄歸到鄉里, 一見妻子, 便當即來, 多不過一年之期. 就好到此永奉歡笑, 不知可否?" (明 凌濛初, 『二刻拍案驚奇』 卷三十七 明崇禎尙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433면)

현실을 보여주는 설정이다. 반면, 정재의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 (나-②)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재는 요양 지역으로 행상을 나가기 전 이미 고향 회주에서 장가를 갔고 자식도 두었다. 이는 정재가 회주를 떠나기 전에 상당히 부유했음을 의미한다. 정재 형제는 막대한 양의 화물을 가지고 요양으로 가서 장사를 계획했다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비록 장사가 여의치 않아 피고용인이 되었으나 결국 해신을 만나게 된다. (나-①)에서는 해신이 정재를 찾아온 이유는 전생의 인연, 즉 '숙연(夙緣)' 때문이라고 밝힌다. 이는 집을 떠난 상인들, 특히 회주 출신 상인들 사이에는 '양두대'라는 혼인 형태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재는 고향에 다녀온 후에도 해신과 계속 만나기를 원하지만, 해신은 "대수당연(大數當然)"이라며 울면서 이를 거절한다. 이는 '양두대' 혼인 형태에서 '본처(本妻)'와 '외향첩(外鄉妾)'을 구분하지 않고 두 가정을 유지하지만, 실제로 본처의 지위를 더 중시하는 양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문약허의 혼인 불가 상황과 정재의 '양두대' 혼인 설정은 명나라 말기 전후로 상업적 활동이 크게 중시되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두 작품에 나타난 주요 인물의 상인 이미지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특히 '상인'과 '사인'이 융합된 모습과 상업에 대한 복합적인 태도가 유사하게 드러난다는 공통점은 작가 스스로 '사인'이면서도 책을 간행하는 상업 활동을 했던 경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반면, 고향 귀환 여부와 혼인의 형태가 드러내는 차이점은 상업의 발전이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 충격을 주면서 상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난 시대적 배경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3. 두 작품 속 조력자의 상인 이미지와 상징적 의미

소설 속 서사 진행에서 조력자의 보조 역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인물들은 상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두 작품에는 다양한 조력자가 등장하지만, 이 가운데 상업 활동을 이끌고 이야기의 전환점에 결정적 도움을 준 대표적 인물의 상인 이미지만 분석하고자 한다.

1) 외향(外鄉) 상인의 전범(典範) 마보함(瑪寶哈)

a.

일행은 한 페르시아인의 가게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다. 안쪽에 있던 가게 주인은 바다를 건너온 손님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먼저 은전을 내어 주방에게 술상 몇 십 석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야 걸어 나왔다. 이 가게 주인은 페르시아 사람이고 아주 특이한 성을 쓰는데, 마노(瑪瑙)에서 딴 ‘瑪’ 자를 성으로 삼아 이름을 마보함(瑪寶哈)이라고 하였다. 그는 주로 바닷길로 오가는 상인들과 귀한 물품을 교환하는 일을 하는데, 그의 밑천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³⁸⁾

b.

알고 보니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익을 중요시하여 화물 목록에 진귀한 보물이 만 냥에 달할 만큼 값나가는 자가 먼저 상석에 앉게 하였다. 나머지는 화물의 가치에 따라 차례대로 앉히는데 나이도 따지지 않고 신분의 높고 낮음도 묻지 않는 것이 정한 규칙이었다.³⁹⁾

c.

문약하는 끝내 오만 낭만 요구하였다. 그런데 가게 주인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죄과요, 죄과.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다.”⁴⁰⁾

38) "衆人到了一個波斯胡人店中坐定. 裏面主人見說海客到了, 連忙先發銀子, 喚廚戶包辦酒席幾十桌. 分付停當, 然後踱將出來. 這主人是個波斯國裏人, 姓個古怪姓, 是瑪瑙的瑪字, 叫名瑪寶哈, 專一與海客兌換珍寶貨物, 不知有多少萬數本錢." (明 凌濛初, 『拍案驚奇』 卷一 明崇禎尙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9면)

39) "元來波斯胡以利爲重, 只看貨單上有奇珍異寶值得上萬者, 就送在先席. 餘者看貨輕重, 挨次坐去, 不論年紀, 不論尊卑, 一向做下的規矩." (明 凌濛初, 『拍案驚奇』 卷一 明崇禎尙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10면)

40) "文若虛只得討了五萬兩. 主人還搖頭道: '罪過, 罪過. 沒有此話.'" (明 凌濛初, 『拍案驚奇』 卷一 明崇禎尙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11면)

(a)에서 마보합은 페르시아 상인으로서 외국에서 큰 규모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외국에서 장사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는 성실하게 '이(利)'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b)에서는 마보합이 화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좌석을 배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대목만 보면 그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c)에서 타용 껍질에 문약허가 5만냥만 요구할 때 마보합이 반대한 사실에서 그가 공정하게 장사를 하는 원칙이 잘 드러난다. 사실 외국에서 본인의 힘으로 성공한 마보합은 상인으로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와 정당하게 장사를 하는 덕목을 모두 갖춘 인물이다. 이는 타향상인(他鄉商人)의 본보기이며, 타향상인이 된 문약허에게 성공적인 길을 제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2) 초현실적 여성 조력자 해신(海神)

a.

정재는 상인이자 그렇게 많은 금과 은을 보자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가슴은 달아오르고 입안에 군침이 돌며, 손발까지 덩달아 움직였다. 당장이라도 그것을 취하고 싶었는데, 해신이 젓가락으로 그릇 안의 고기 한 점 집어 정재의 얼굴에 내던지며 말하였다.

“이 고기가 그대 얼굴에 붙어 있겠어요?”

정재가 대답했다.

“이 고기는 남의 것이니 어찌 내 얼굴에 붙을 수 있겠어요?”

그러자 해신이 금과 은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것 또한 남의 물건인데 어찌 그대 것이 될 수 있겠어요? 당장 조금 가져간다 해도 상관없지만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얻으면 도리어 화를 불러올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땅치 않은 물건을 취했다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잃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어디 한두 가지 있겠어요? 내가 어찌 그런 일로 그대를 해치겠어요! 만약 금과 은이 필요하다면 그대가 스스로 벌어서 보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리켜 주고 도와줄 터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정재가 말하였다.

“그것도 좋겠습니다.”⁴¹⁾

b.

회주 지역 사람들은 본디 장사하는 일을 매우 중히 여겨서 상인이 집으로 돌아오면 바깥으로는 온 친척과 벗들이, 안으로는 처첩과 온 집안 식솔들이 그가 얻은 이익만 본다. 이익이 많으면 모두가 우러러 섬기고 공경하며, 이익이 적으면 모두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긴다. 이는 마치 과거에 급제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 맞이하는 광경과 다를 바 없다.⁴²⁾

정재는 장사의 실패로 인해 수년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요양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었다. 이는 (b)에서 설명된 것처럼, 회주 지역의 중상(重商) 사상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a)에서는 해신이 정재에게 스스로 장사하여 돈을 벌라고 권고하며,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상업의 정도(正道)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동시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이후 해신이 약속대로 시장에서 수요가 예상되는 화물을 정확히 알려주어 정재가 장사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이는 시장의 예측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신은 조력자로서 시장 화물의 수요를 완벽히 파악하는 여성 상인 이미지를 갖추어, 정재를 비롯한 외지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여성 조력자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일반 여성이 아닌 해신을 등장시킨 것은 초현실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그만큼 시장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41) 程宰是個做商人的，見了偌多金銀，怎不動火，心熱口饒，支手舞腳，卻待要取。美人將箸去饜碗內，夾肉一塊，擲程宰面上道：“此肉黏得在你面上麼？”程宰道：“此是他肉，怎麼黏得在吾面上？”美人指金銀道：“此亦是他物，豈可取爲己有？若目前取了些，也無不可。只是非分之物，得了反要生禍。世人爲取了不該得的東西，後來加倍喪去的，或連身子不保的，何止一人一事？我豈忍以此誤你！你若金銀，你可自去經營，吾當指點路徑，暗暗助你，這便使得。”程宰道：“只這樣也好了。”(明 凌濛初，『二刻拍案驚奇』 卷三十七 明崇禎尙友堂刻本，中國基本古籍庫，431면)

42) "徽人因是專重那做商的，所以凡是商人歸家，外而宗族朋友，內而妻妾家屬，只看你所得歸來的利息多少爲重輕。得利多的，盡皆愛敬趨奉。得利少的，盡皆輕薄鄙笑。猶如讀書求名的中與不中歸來的光景一般。"(明 凌濛初，『二刻拍案驚奇』 卷三十七 明崇禎尙友堂刻本，中國基本古籍庫，426면)

마보합과 해신은 조력자로서 상업 활동 중심의 서사 진행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완벽한 상업적 능력과 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동시에 이들은 주요 인물들의 조력자가 되어 이야기의 흥미를 더하고 상인의 성공 방식과 특정 지역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4. 결론

본고는 명나라 말기에 능몽초의 백화 단편소설집 『초각박안경기』 권1에 실려 있는 「전운한우교동정홍(轉運漢遇巧洞庭紅)」과 『이각박안경기』 권37에 실려 있는 「첩거기정객득조(疊居奇程客得助)」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두 작품에 나타난 상인 이미지를 고찰하였다. 우선 주인공 상인 이미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상인'과 '사인'이 융합된 양상과 상업 활동에 대한 복합적 태도라는 두 측면에서 공통점을 확인하였고, 귀향 여부와 혼인 형태라는 두 측면에서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상업 발전에 따른 시대적 변화 속에서 작가가 창작 과정에서 통일과 모순이 교차하는 점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주인공을 위해 조력을 제공하는 주변 인물들의 상인 이미지와 그 상징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작가가 완벽한 상인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단순히 운명이나 행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업 활동 가운데, 인간으로서 성실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덕목을 보여주는 마보합과 초현실적 존재인 해신이 정재에게 정당(正當)한 경영으로 이익을 얻으라고 권고하는 장면은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신이 시장 화물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은 일반 상인으로서 얻기 어려운 신적 힘을 상징하며, 이는 상업이 활발히 발전하던 그 시대에 상인들에게 주는 조언이자 경계로 해석된다.

물론 능몽초가 약간 시기적 간격을 두고 창작한 두 작품만으로 작가가 작품에서 보여주고 싶은 상인 이미지가 변모했다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 그럼

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난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參考文獻

- 曲 玉, 「'二拍'人物形象探析」, 蘇州大學 석사학위논문, 2007.
- 郭秀蘭, 「淺談'二拍'中的儒商形象」, 『長春師範學院學報』4, 2013.
- 邱紹雄, 『中國商賈小說史』, 北京大學出版社, 2004.
- 邱紹雄, 「試論'三言' '二拍'中的商人形象」, 『岳陽大學學報』2, 1992.
- 段江麗, 「理學與《三言》、《二拍》中的道德說教」,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3, 1999.
- 鄧作惠, 「明末商人心靈世界的寫真—《疊居奇程客得助三救厄海神顯靈》文化解讀」, 『阜陽師範學院學報』4, 2007.
- 郎娟娟, 「從“三言二拍”看明代市民文學的特色」, 『綿陽師範學院學報』12, 2018.
- 劉 越, 「'三言二拍'中的士商形象研究」, 重慶工商大學 석사학위논문, 2017.
- 明 凌濛初, 『二刻拍案驚奇』卷三十七 明崇禎尚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 明 凌濛初, 『拍案驚奇』卷一 明崇禎尚友堂刻本, 中國基本古籍庫.
- 伏漫戈, 「'二拍'人物研究」, 陝西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06.
- 蘇傳波, 「'三言二拍'中的商人形象研究」, 黑龍江大學 석사학위논문, 2012.
- 宋眞榮, 「'二拍'의 商賈小說 연구—〈轉運漢巧遇洞庭紅 波斯胡指破龜龍殼〉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46, 한국중국소설학회, 2015.
- 余英時, 『中國近世宗教倫理與商人精神』, 九州出版社, 2014.
- 吳明東·葛衛東, 「功利觀的萌發與市民道德觀的升值—'三言二拍'思想新變闡釋」, 『齊齊哈爾大學學報』3, 1999.
- 鄒全俊, 「'三言二拍'中商人形象的兩難境遇與創作矛盾」, 東北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7.
- 王桂清, 「從'三言' '二拍'中商人入仕途徑看商人的官本位意識情結」, 『北方論叢』2, 2004.
- 王瑞雪, 「'三言'商人形象的文化解讀」,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08.
- 王立言·人民, 「'三言' '二拍'研究綜述(1949-1989)」(상), 『中國文學研究』4, 湖南師範大學, 1992.

- 王立言·人民, 「'三言' '二拍'研究綜述(1949-1989)」(하), 『中國文學研究 1, 湖南師範大學, 1993.
- 李小榮, 「明代白話短篇小說與徽商」, 安徽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4.
- 李志琴, 「試論“三言”“二拍”中的儒商精神」, 『韶關學院學報』 11, 2011.
- 李桂奎, 「論“三言”“二拍”角色設計的士商互滲特徵」, 『遼寧師範大學學報』 4, 2003.
- 任治蘭, 「〈二拍〉經商活動總論」, 曲阜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 張 寧, 「“三言”“二拍”中涉商類小說思想研究」, 北京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8.
- 張亮星, 「經濟維度下的“三言二拍”研究」, 江西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21.
- 迪更妮, 「論三言二拍'中基于傳統文化思想的商業論理道德」, 中國石油大學 석사학위논문, 2015.
- 全賢淑, 「明代白話短篇小說中誠信觀念研究」, 東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06.
- 程國賦, 「三言二拍嬗變作品敘事結構研究」, 『學術研究』 5, 2005.
- 趙雪豔, 「“三言”“二拍”中反面商人形象及其勸誡意義」, 『哈爾濱學院學報』 4, 2008.
- 趙雪豔, 「三言二拍的商業價值觀研究」, 中國海洋大學 석사학위논문, 2008.
- 周宜智, 「明末清初小說中的儒商形象研究」, 新疆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7.
- 崔璟宸·何雨航, 「從“三言二拍”看明代士商群體的交融」, 『名作欣賞』 23, 2024.

Abstract

A study on Merchant Images in LingMengchu's Pai'an Jingqi
— Focusing on 「轉運漢遇巧洞庭紅 波斯胡指破龍殼」 and 「疊居奇程客得助 三救厄海神顯靈」

Yang Leilei

This study analyzes the portrayal of merchants in two late Ming vernacular short stories from Ling Mengchu's Amazing Tales collections: "The Luck of a Han Scholar Turns with Dongting Tangerines" (Chuke Pai'an Jingqi, Vol. 1) and "Cheng the Trader Profits from Hoarding" (Erke Pai'an Jingqi, Vol. 37). The analysis first identifies shared characteristics in the protagonists' dual identity as both merchants and literati, as well as their complex attitudes toward commercial activity. In contrast, notable differences are observed in terms of their return to hometown and marital arrangements. These findings reflect the author's narrative strategy of navigating the tensions between coherence and contradiction during a period of rapid commercial development. Furthermore, by analyzing the symbolic implications of supporting characters who assist the protagonists, the study reveals the author's intention to construct an idealized image of the merchant. Through these characters, who advocate for ethical business practices and embody intuitive market foresight, the narratives emphasize the value of integrity and prudence in commercial life. Such depictions serve not only as guidance but also as a cautionary message to merchants of the time.

Key words : Ming Dynasty fiction, vernacular short story, merchant, supporting characters, commercial narrative, commercial strategy

투 고 일 : 2025. 7. 10. / 심 사 일 : 2025. 7. 15. ~ 2025. 8. 15. / 게재 확정일 : 2025. 8. 20.